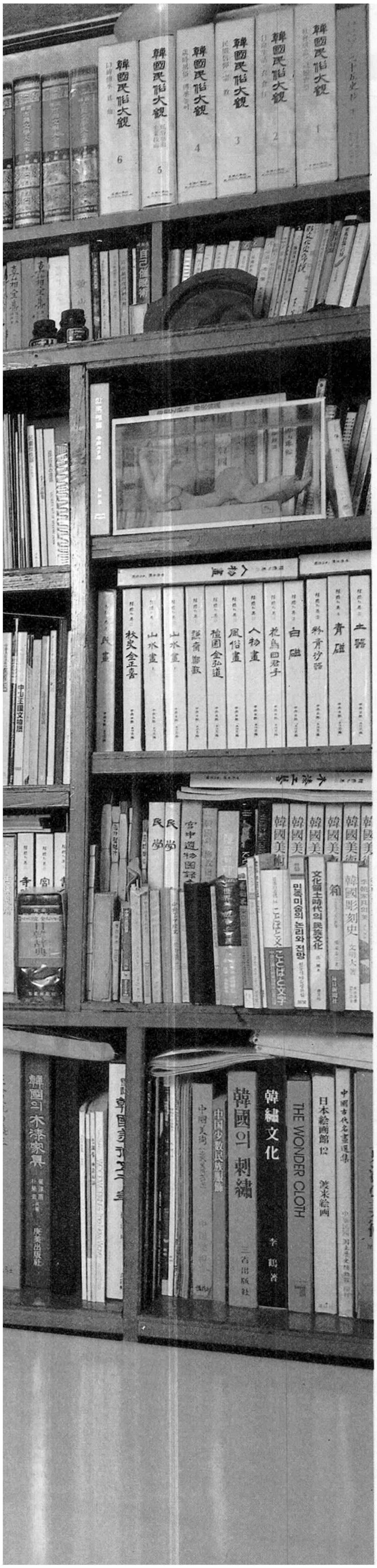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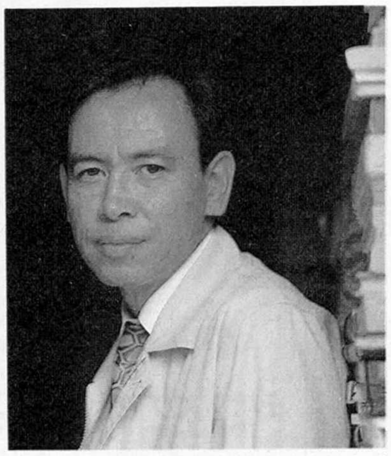
李相佰著作集
KOREAN FOLK PAINTING
韓國人名大事典
漢字大典
天馬塚
雁鴨池
全谷里
石佛
張旭鎭
崔榮林
雨鄉 朴崍賢
韓國近代美術
韓國現代美術
高麗·李朝の陶磁文具
木漆工藝
ORIENTAL CARPETS
African Crafts and Craftsmen



"이젠 내 목소리 가다듬은 著書를"

湖巖갤러리館長 李宗碩씨의 書架



1933년 충남牙山 태생. 高大 국문학과를 나와 문화인류학회 회원으로 활동. 檀大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했다. 「새벽」誌를 거쳐 대한일보 · 중앙일보 문화부에서 문화재 및 미술기자로 활약했다. 「季刊美術」主幹을 거쳐 현재 호암갤러리 관장. 문화재 전문위원 · 弘大강사 겸임. 편저서로 「한국 古代漆器硏究」「木漆工藝」「한국의 목공예」 등이 있다.

10여년 전의 일이다. 서울 환도 이후, 특히 20년간 美術記者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놨던 각종 전람회의 카탈로그를 정리해 묶어놓으니 열세뭉치가 됐다. 신설된 국립미술관 자료실에 주어버리기로 하고 兮谷선생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더니 신변정리가 좀 빠르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셨다.

낡은 책일수록 이상하게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常情인데, 그럼에도 나이들수록 정작 필요로 하는 책의 범위는 점점 좁혀지게 마련이다. 일을 떠벌릴 적에는 오만가지 것을 다 하고 싶었지만, 목표가 선명히 설정된 연후에는 괜한 욕심 때문에 시간을 허송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書架 치레로나마 꽂혀 있게 되는 책들이 늘어나게 된다.

골프 · 테니스는 물론 양춤조차 모르는 채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雜技는 커녕 장기 한판 두어본 적이 없는 주변머리다. 피로를 술로써 풀며 현장공부를 해왔던 셈인데, 이제는 기자수첩이니 문화재수첩이니 하는 雜技도 그만두고 책이나 한두권 착실히 쓰고 싶은 생각이다. 남의 장단에 춤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싶다. 그게 「한국工藝史」라 해도 좋고 「工藝概論」이라 해도 좋다. 〈李宗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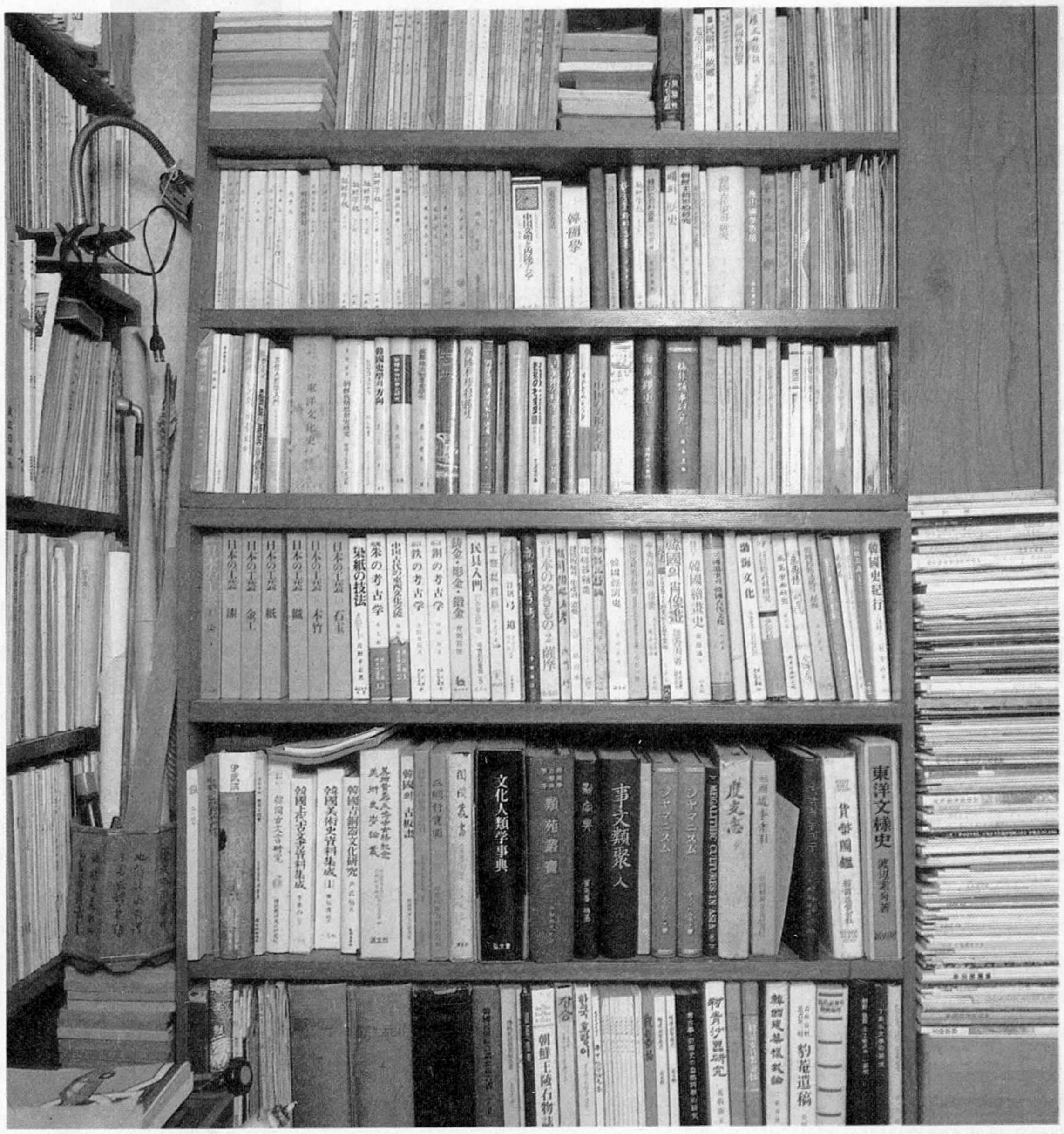



사진 · 구본창